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올 여름 미 고용 둔화, 8월에 실업률 상승
- WSJ: 금리 인상에 이제 그 여파를 느끼게 된다

[미국 금융]

- WSJ: 20년이 지난 현재, 증시와 채권 시장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 Bloomberg: 미 증시, 여전히 경착륙 직면

[Covid]

- WSJ: 코비드 변종 2개 발생

[미국 생활]

- WSJ: 미국 가정 이상적인 자녀 수, 실제 출산율보다 ↑
- WSJ: 미국 요양원 정부 가이드 기준으로 인원 늘려야

[오일]

- Bloomberg: 사우디 원유 수출 급감

[전기차]

- TechCrunch: 바이든 행정부, 배터리와 전기차에 1백55억불 지원 시작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경제 둔화는 미국과 동맹국에 기회와 리스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CFO가 생성 AI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 Bloomberg: 삼성, 엔비디아 AI 공급망 참여로 6% 상승
- Bloomberg: 테슬라, 모델3 개편하고 최고급 모델 가격 삭감
- CNN Business: 현대와 LG,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20억 더 추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Job Gains Eased in Summer Months, Unemployment Increased in August

올 여름 미 고용 둔화, 8월에 실업률 상승

- 8월에 미 고용주들은 18만7천개의 일자리를 늘렸는데 6월과 7월의 일자리는 총 11만개가 하향조정 됐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금요일 밝혔다.
- 즉, 위에 3개월 동안에 월 평균 1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간 평균 월 23만8천개 증가에서 줄어든 수치다.
- 실업률은 7월의 3.5%에서 8월에 3.8%로 상승했다.
-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에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11월 또는 12월에 금리 재인상에 대한 논의나 논쟁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

반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WSJ 기사

WSJ: Rates Are Up. We're Just Starting to Feel the Heat. 금리 인상에 이제 그 여파를 느끼게 된다

-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장기 채권 수익률은 15년래 최고치로 상승했고, 연준 금리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0.5%였다. 그런데 이제는 5.25%에서 5.5% 사이이며 향후 10년간 3.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출자의 더 높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큰 피해자는 납세자들이다. 연방 부채는 올해 분기 93%까지 치솟았다. 연방정부의 각 분야 지원 차원에서의 차입 결과다. TD증권에 따르면 연방 부채의 67%가 5년 이내 만기 도래라는 것이다.
- 은행 3군데가 파산했고, 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부채를 채용자할 경우 기업의 이자 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지출과 연구 및 고용 여력을 제한 받게 된다. 개인의 모기지를 제외한 용자 이자 비용은 더 높게 올라가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The Generational Paradigm Shift Taking Over Markets 20년이 지난 현재, 증시와 채권 시장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 경제 소실이 불길할 때는 증시에 좋고,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났다. 최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일자리 증가가 놀랍게 약화되어 예상보다 50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요 감소를 보게 되고 소비자들의 심리는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를 반기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줄어들어 국채 수익률은 감소하고 주식 가격을 올라가게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이었던 대공황, 2차세계 대전, 베트남 전쟁 당시 주식과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 이후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자들은 주식과 국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에 익숙해졌다.
- 그러나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면서 패턴이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즉, 증시가 정점을 찍었던 7월에는 2009년 이래 최장 기간인 14일 연속으로 S&P500 지수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이었던 패턴으로 바뀌었다.
- 현재와 달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을 때는 수익 증가 전망이 금리 상승 위험보다 강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상승엔 오히려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좋은 소식

은 주식에 좋다는 것이다.

- 현재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US Stocks Still Face Hard Landing Risks, Bank of America Says

미 증시, 여전히 경착륙 직면

-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증시는 경착륙 리스크 때문에 하락세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 물론 노동시장의 연착륙 신호는 연준 금리 인상 중단에 조짐이지만 이번달에 경착륙 징후들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S&P 500 지수가 1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은 성장을 약화에 따른 금리 하락의 혜택은 취약한 상황이고, 유럽과 중국에서 많은 악재가 터졌는데 미국 소비가 증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ovid]

WSJ: Covid This Fall: What's the Same, What's Different and What to Know

코비드 변종 2개 발생

- **새로운 변종은 무엇인가?:** 이번 여름 팬데믹 환자를 급증시킨 건 모두 XBB 변종이다. 이는 오미크론에 뒤이는 것으로 다음 달 출시될 부스터로 예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또 다른 변종인 BA.2.96은 오미크론 XBB와는 다르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부스터로 예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부스터와 새로운 변종의 효과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 **감염 현황은?:** CDC데이터에 따르면 8월 셋째주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전주 대비 19%, 8월 넷째주 사망자는 17.6% 증가했다. 검사 양성률도 지난 몇 달 동안 증가해 8월 넷째주에 14.9%. 6월에는 4%였다.
-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정확성은?:** 감염 초기에는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여러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무료 검사 또는 검사 키트 받을 수 있나?:** 무료 검사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소외된 지역 사회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Americans' Ideal Family Size Is Larger Than the Birthrate Suggests 미국 가정 이상적인 자녀 수, 실제 출산율보다 ↑

-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상적인 자녀 수' 설문 조사에 2~3명의 자녀라고 답한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 출산율은 2007~2009년 경기 침체와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은 여전히 2~3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 실제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했다. 팬데믹 기간 때 잠시 하락했지만, 2022년에 44%로 반등한 것.
- 한편 두 명의 자녀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1998년 62%에서 2022년 51.7%로 감소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5명으로, 1990년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WSJ 기사

WSJ: Nursing Homes Must Boost Staffing Under First-Ever National Standards

미국 요양원 정부 가이드 기준으로 인원 늘려야

- 미국 요양원은 바이든 행정부 제안에 따라 직원을 늘려야 한다.
- 최초의 국가 직원 배치 규칙에 따라 요양원 간호사는 환자 한 명당 최소 0.55시간, 간호사 보조원은 2.45시간의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즉, 간호사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약 75%의 요양원이 시설 내 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제안된 인력 배치 기준은 기존 기준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 “요양원에 대한 최소 인력 기준을 설정하면 환자의 안전을 개선하고 양질의 치료를 촉진할 것”이라며 “환자와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Xavier Becerra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다.
- 또한 정부는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7천 5백만 불 이상을 투자해 요양원 직원 채용 전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Saudi Crude Oil Exports Plummet as OPEC Giant Slashes Production**사우디 원유 수출 급감**

- 사우디 원유 수출이 8월에 급격히 감소했다. 생산량을 억제해 유가를 상승 시키기 위해서다.
- 사우디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560만 배럴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OPEC 동맹국과 러시아는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 조짐으로 혼란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 주요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원유 유입량이 하루 약 130만 배럴로 급감했다.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서쪽으로의 수출도 급감했다.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은 하루 8만 1천 배럴에 불과하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TechCrunch: Biden offers \$15.5B to boost battery and EV manufacturing
바이든 행정부, 배터리와 전기차에 1백55억불 지원 시작

- 연방 재무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1백55억불을 지원하게 된다. 그 지원금의 대부분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전기, 하이브리드 및 수소 연료 전기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위해 공장을 탈바꿈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총 1백20억달러(20억 불은 보조금, 1백억불은 대출금)가 소형, 중형, 대형 전기차 생산 전화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 나머지 35억불은 전기차 및 전력망용 배터리와 그동안 다른 국가들에서 수입했던 배터리 소재와 부품의 미국내 제조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TechCrunch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The US, Allies See Opportunity and Risk in China's Slowing Economy**중국 경제 둔화는 미국과 동맹국에 기회와 리스크**

- 당초 중국이 쇠퇴하는 미국의 추월에 최강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그런 판단의 바뀌고 있다. 이제는 거꾸로 중국 경제과 인구 둔화

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바뀌고 있다. 엘런 연방 장관은 중국의 인구 감소를 성장과 투자 측면에서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 연방재무부의 Wally Adeyemo도 중국은 점차 직접 투자와 외국 회사들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 G7 관리들도 18조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 위기가 G7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성장 동력이 흔들릴 경우 이미 불안정한 전망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미국, 유럽, 일본 관리들은 중국의 수요 약화가 세계 경제와 자신들의 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5 Things CFOs Should Know About Generative AI CFO가 생성 AI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 재무 책임자들은 생성 AI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장기적 계획에 기술을 통합해야 한다. 이를 늦추면 경쟁사에 뒤쳐질 위험이 있다. 특히 역량이 발전하면서 잠재적 효율성을 놓칠 수 있다.
- 올바른 AI 활용: 기업들은 생성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클라우드 보안 회사 Netskope CFO인 Drew Del Matto가 말했다.
- 가드레일 구축 및 재무 위험 방지: 기술에 기반한 가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와 소비자 선호도를 가정해서 가격을 예측할 때,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
- 좋은 직원 채용: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Tradeweb의 CFO Sara Furber가 말했다.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ROI 평가: 생성 AI는 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더 잘 수행해 투자 결정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WSJ 기사

Bloomberg: Samsung Gains 6% on Reports It's Joining Nvidia AI Suppliers

삼성, 엔비디아 AI 공급망 참여로 6% 상승

-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면서 6% 이상 상승했다.

-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메모리 반도체인 HBM3을 4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후에 삼성 이HBM3의 주요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씨티그룹 증권 분석가는 보고했다.
- 한편, 한국 데일리 경제는 이번 금요일 삼성이 공급한 HBM3가 최종 품질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삼성이 엔비디아에 공급 계약을 굳힌 것으로 보고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esla Refreshes Model 3 and Slashes Prices of Top-End Cars 테슬라, 모델3 개편하고 최고급 모델 가격 삭감

- 테슬라가 세단형인 모델3을 유려한 외관과 긴 전장을 갖추도록 변경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리미엄 차들의 가격을 삭감한다.
- 테슬라는 세단형 모델S와 SUV 형인 모델X 차량을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을 대폭 삭감했으며, 운전 보조 시스템을 갖춘 모델의 가격 또한 3,000에서 12,000달러까지 가격을 낮춘다.
- 이에 따라 테슬라는 기본 모델인 S형을 74,990달러에, X 모델을 79,990달러에 각각 판매하게 된다.
- 기본 모델 X를 80,000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해당 모델을 구입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Hyundai, LG to spend \$2 billion more on Georgia battery plant 현대와 LG,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20억 더 추가

- 현대 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20억달러를 더 투자하고 4백명의 일자릴 더 늘리며 공동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 기업의 조인트 벤처인이 생산시설은 현재 총 43억달러가 투자되어 향후 연간 30만개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8월 일자리 증가 둔화 전망...인플레 우려 부담 덜 듯"

할리우드 파업 등으로 증가폭 줄어...금리인상 랠리에 영향 전망

미국 금리 결정의 중요한 참고 지표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어간다는 분석이 또 나왔다.

미국 폭스비즈니스는 1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의 이코노미스트 전망을 인용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자체 이코노미스트 설문 조사에서도 이 전망 수치는 같게 나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